

모로코, 아프리카 첫 월드컵 4강행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아시아 첫 4강을 쓴 것처럼 모로코가 이번 대회에서 아프리카 첫 4강 진출 이변을 일으켰다.

모로코는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전반 42분에 나온 유세프 엔네시리의 헤더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모로코는 벨기에와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까지 시드 배정을 받았던 세 팀을 모두 탈락시키는 대이변을 일으키며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4강 기록을 남겼다.

반면 포르투갈은 스위스와 16강전에서 6골을 넣으며 맹위를 떨쳤지만 모로코의 집식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짐을 싸들었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일궈내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됐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점유율 축구의 종말을 그대로 보여줬다. FIFA 통계에 따르면 모로코는 무려 22-60으로 볼 점유율에서 포르투갈에 밀렸다. 경합 18%를 고려했더라도 모로코는 포르투갈에 점유율에서 열세였다. 하지만 공격 하나는 날카로웠다.

포르투갈에 1-0 승리하며 준결승 진출 포르투갈 무득점...호날두 초라한 '라스트 댄스'



모로코 선수들이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1-0으로 이기고 아프리카 첫 4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전반 42분 야흐야 아티타트알라의 왼쪽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높은 타점에서 헤더골로 연결시켰다. 포르투갈이 끌기며 디오구 코스타도 공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엔네시리의

타점이 더 높았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감에도 오히려 선제골을 뺏긴 포르투갈은 다급해졌다. 그러나 모로코는 이런 포르투갈의 마음을 이용했다. 후반 12

분 로마인 살리스를 빼고 아크라프 다리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5장의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포르투갈의 힘을 빼놓았다.

여기에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지 않는 밀집 수비로 포르투갈의 혼을 빼놓았다.

모로코는 조별리그 캐나다와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유일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는 캐나다 선수의 득점이 아닌 자책골이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16강전에서도 끌기며 야신 부누를 앞세워 무실점 경기로 무승부를 만든 뒤 승부차기에서 이기더니 포르투갈과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은 후반 6분 후엔 네베스를 빼고 호날두를 투입시키고 스위스전 헤트트릭 영웅 곤살로 하무스를 후반 14분에 뺄 정도로 다급했지만 한번 닫힌 모로코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추가시간 8분이 선언된 가운데 2분이 지난 시점에서 왈리드 체디라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지만 모로코의 수비는 견고했다.

결국 모로코는 월드컵 사상 첫 아프리카팀 4강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했다.

/뉴시스



프랑스, 잉글랜드 꺾고 4강 진출 프랑스가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

우완 투수 메디나 영입...총 63만6000달러에 계약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 /KIA 타이거즈 제공

2020년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MLB에서 2020년 1경기, 2021년 4경기 등판에 그쳤던 메디나는 올해 뉴욕 메츠 소속으로 MLB 14경기에 등판, 23%이닝을 던지며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6.08을 기록했다.

올 시즌 트리플A에서는 18경기(선발 2경기)에서 31이닝을 소화하며 1승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65의 성적을 거뒀다.

메디나의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135경기(선발 106경기) 36승 33패 2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점 3.83이다.

KIA는 "메디나는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과 결정구로 던지는 싱커가 워낙적이다. 슬라이더와 체인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진다"며 "특히 빠른 구속에도 제구가 안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총액 110만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IA는 총액 100만달러에 손앤드슨을 영입한데 이어 메디나와도 계약하면서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질주'...58일간 운영

선수·동호회·일반인 이용가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전남도는 겨울철 선수와 일반인이 자동차경주장을 주행하는 '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운영을 위해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동계시즌은 2023년 3월 19일까

지 총 12차 58일간 운영된다. 매주 수·목요일은 F1코스를 주행하는 선수와 동호회 주행을 위한 단체인대가 진행된다. 금요일과 주말은 일반인 등 서킷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1주권'과 '1일권'으로 구분 판매한다. 경주장은 자동차 정비공간(피트

이 분리돼 있고 참가인원 간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간 참가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연인원 2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참가자의 90% 이상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경주장을 방문하고 있어서 비수기를 맞은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동계 훈련을 위해 2013년부터 동계시즌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50여 일간 연인원 2000여명이 경주장을 방문하는 등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KIC 사업단(www.koreacircuit.kr · 061-288-4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배 기자

광주장애인배드민턴 이정수 국가대표 선발전 전승 우승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정수(전대사대부고)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태극마크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광주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정수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수는 이번 대회 남자 단식 SL5(지체장애) 부문에 출전해 국내 랭킹 2위와 4위 선수들을 모두 2대 0으로 꺾었다.

또 친척인 국내랭킹 1위인 김기연(서울의료원)을 2대 1로 이겨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대회 랭킹포인트 3위였던 이정수는 이번대회 우승으로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려 2장의 국가대표 선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